

19. 나마하게관: 해설, 수행자설

오가반도를 대표하는 2 개의 산인 혼잔과 신잔에는 예전에는 산을 신성한 것으로 추앙하던 고행승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악 신앙은 중세 일본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수행승들은 자신의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장기간 고도가 높은 곳에서 지냈고 종종 머리와 수염을 마음껏 길렀습니다. 이런 것으로 유추해 보면 지역민들이 나마하계의 외모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고행승들의 험악한 외모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도 꼭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행승이 드물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관습이 바탕이 되어 선달 그믐날 밤에 신의 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할 때는 음식을 대접하는 나마하게 전통이 성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